

10월 3주
묵은땅 같은 마음을 새롭게

- 본문 말씀: 호세아 10:12~13 (10월 13일 본문)
- 포인트: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마음을 새롭게 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요.

≡ 1. 찬양

(경배와 찬양)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 2. 기도

하나님, 저희 가족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해 주세요.

≡ 3. 말씀

호세아 10:12~13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12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 너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우리말성경>

12 네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13 너희가 *사악함을 심었고 죄악을 거뒀들었으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너희가 너희 방법과 너희의 많은 용사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 본문 이해

이스라엘의 죄가 오랫동안 지속되자, 하나님은 인내를 그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기로 하셨어요. 심판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야 해요. 하나님을 찾고, 목은땅을 갈아엎듯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악을 버리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에 북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는 북 이스라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북 이스라엘은 국력이 커져서 주변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영토도 확장되어 번영을 누렸어요(왕하 14:25).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던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풍요로운 소유물로 멋지고 화려한 예배를 드렸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고, 백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그저 백성이 바치는 제물로 자기 이익을 취하기에 바빴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과거에 조상들을 인도했던 광야의 신 정도일 뿐,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신은 농사가 잘되도록 비와 폭풍우를 내려 주는 바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바알을 더 중요한 신으로 여기며 섬겼어요. 백성은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도 무감각해져서 이웃에게 불의를 행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의 아픔이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향해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호세아는 죄에 찌든 백성의 모습을 목은땅에 비유하며 새롭게 갈아엎으라고 외쳤어요. 그들이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찾지만 한다면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실 거라고 말해요.

≡ 4. 나눔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은땅을 기경하라(갈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은땅’은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12 절)

■ 저학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12절)

■ 유아, 유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셨나요?(12절)

□ 질문 가이드

목은땅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둔 땅을 말해요.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았기에 잡초와 가시나무와 들팽이가 많을 수 있어요. 목은땅에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려면, 밭을 갈아엎어야 해요. 본문에 나오는 목은땅은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리켜요. 이러한 마음에는 죄악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로 물든 마음 밭을 갈아엎고 공의와 사랑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임박한 심판을 알지 못한 채 죄에 빠져 있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온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음을 알려 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과거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죄에 익숙해진 백성의 마음은 목은땅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심판을 보류하셨지만, 이제는 원하시는 때에 징계하실 거예요. 그러니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목은땅을 갈아엎듯 자신의 죄악을 버려야 해요. 그러면 소낙비처럼 내리는 구원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야 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사는 길로 돌이키는 것만이 그들이 살 길이에요.

2) 내 안에 오랜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죄의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것을 버리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저학년**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유아, 유치**

나에게 있는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요?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질문 가이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편한 것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나쁜 습관은 죄를 짓게 하는 지름길과 같아요. 오래 방치하지 않도록 미리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해요. 오래된 습관일수록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래부터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바알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며 살았어요. 바알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풍족하게 살게 해 준다고 믿었지요. 이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셨어요. 어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묵은땅을 갈아엎듯 죄로 찌든 모습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습관처럼 죄를 짓게 돼요. 나에게 있는 죄 된 모습이나 죄를 짓게 하는 나쁜 습관을 찾아보고 빨리 없애려고 노력해야 해요.

≡ **5. 감사하기**

잘못된 죄의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죄로 향하는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습관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사랑을 심고 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즐거이 연합하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